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한인사회 10대 뉴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1위

대한항공 취항은 실제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뉴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한인사회의 반발도 가시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코리아 편집진 및 칼럼니스트들은 올해 보스톤 한인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뉴스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선정했다.

15명의 보스톤코리아 편집진 및 칼럼니스트들이 선정한 순위에 따르면 대한항공보스톤직항 취항은 그다음 큰 뉴스였으며 이민자들의 복지혜택 수혜를 영주권 거부사유로 추진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세번째 피부에 닿는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 1,2,3위에 선정된 세 뉴스는 점수 선정에서 동점을 기록했으나 1위표와 2위표 수를 통해 1,2,3위가 갈렸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전쟁 일촉즉

발의 상황까지 말폭탄을 던지며 대결을 서슴지 않았던 한반도 정세에 기적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올해 들어 단 한차례의 미사일발사, 핵실험이 발생하지 않은 평화를 이끌어 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칼럼니스트 대부분은 1위 내지 2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2명의 칼럼니스트는 이를 순위에 넣지 않아 극과극의 평가를 받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1위로 선정한 윤희경 칼럼니스트는 “상상할 수 없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악수로 시작한 정상회담은 한반도 통일의 첫 걸음일 수 있기에 온 한국민에게 크나큰 뉴스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의 외교와 군사면에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2018년 보스톤 한인사회 10대 뉴스

1.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2. 대한항공 보스톤 직항 내년 4월 취항
3. 트럼프 강경 이민법 드라이브
4. 평창올림픽 및 주의회 결의안
5. 중간선거 덴고 등 출마-로빈슨 당선
6. 김용현 총영사 부임
7. 국경지역 이민자 검문 강화
8. 매스 바이오컨벤션 및 제노스코 신약개발
9. 추석 축제 코리아 위크
10. 리얼 아이디 발급

현재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 진전에 따라 내년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보스톤취항은 한국방문이 잦은 유학생들과 한인들에게는 >>2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28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일을 맞아 28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어시길 기원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임직원 일동-

설문조사 참여하고 좋은 선물 가져 가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더욱더 나은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참여에 보답키 위해 작지만 정성스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설문조사는 약 1-2분가량에 걸쳐서 보스톤코리아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콘텐츠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좀더 나은 내용과 질의 언론을 만드는 데 밑거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참여방법>

1. www.bostonkorea.com으로 가셔서 오른쪽 상단 설문조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보스톤코리아 이메일을 받으시면 이메일을 눌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구독을 원하는 보스톤코리아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에 연락 주셔서 이메일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2018년 10.11일 출발 한국행 항공권 특가

인천행 \$919~ 부산행 \$1,129~

보스톤 출발 - 인천행 NON-STOP 항공권

2019년 4월 12일 첫 운항

대한항공/보타항공/고양항공/마지리안항공/워너제트항공/에어캐나다 등 다수 항공사 개시

UNY 여행 617.424.8956

Newstar (I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2018년,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뉴스는?

▶▶1면에 이어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뉴스였다. 보스톤코리아닷컴에서 4만5천회의 조회수를 기록, 2위 기사 조회수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합점수, 1위표까지 동률이었으나 2위 표 수에서 밀려 종합 2위 뉴스에 올랐다.

정선경 기사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보스톤 직항 취항 소식은 주변의 한인들과 가장 많이 나눈 뉴스였다. 이번 직항 취항을 통해 편안한 귀향길은 물론이고 보스톤과 한국 간의 다양한 교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 전망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여러모로 많은 압박을 안겨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3위에 선정됐지만 사실상 종합점수에서 공동1였다. 가장 고른 상위표를 받았으나 1위표는 단 2개에 불과해 순위에서 밀렸다.

정성일 기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강화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하는 한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라고 1위선

정 이유를 밝혔다.

4위는 평창올림픽과 주의회결의안, 5위 덴고 등 한인후보 출마 및 마리아 로빈슨 당선이 그 뒤를 이었다. 양미아 칼럼니스트는 “세계를 향해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창성과 신속한 정보처리 및 영광스런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되는 감격을 벅차게 느낄 수 있었다” 며 1위로 선정 이유를 꼽았다.

중간선거 덴고 등 한인후보들의 출마는 덴고의 낙선으로 인해 명암이 갈렸다. 올해 가장 관심을 받았던 뉴스였지만 9월 덴고가 민주당 경선에서 아쉬운 표차로 낙선, 가슴을 울렸다. 5위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칼럼니스트가 1위로 선정할 만큼 명확히 명암이 갈렸다. 김화옥 칼럼니스트는 “덴고의 낙선이 아쉬웠다” 며 선정이유를 전했다. 미 정치인들과 교류가 깊은 박선우 전뉴햄프셔한인회장 또한 이를 1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양아 출신의 한인 2세 마리아 로빈슨의 MA 하원의원 당선은 한인 정치인 입문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김용현 총영사 취임은 6위, 국경지

역이민자 검문은 7위, 바이오컨벤션 및 제노스코신약개발은 8위, 코리아 위크 9위, 리얼아이디가 10위를 차지했다.

바이오컨벤션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보스톤 소재 바이오벤처 제노스코의 신약개발 기술수출 뉴스였다. 김은한 박사는 “한국의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기에 1위로 선정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 이라며 제노스코의 성취를 칭찬했다.

김용현 총영사 취임과 코리아 위크 등 2개의 총영사관 관련 뉴스가 10위 안에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윤희경 칼럼니스트는 총영사 부임 뉴스에 대해 “사안은 크다고 보겠으나, 총영사 부임을 피부로 느끼는 한인인 얼마나 될까요?” 라고 반문했다. 한인단체와 한인사회 행사의 축소로 직접 총영사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에 나온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코리아 위크는 김 총영사의 부임 이후 처음으로 시도했던 총영사관 주도 축제였다. 첫 번째 시도했던 행사였지만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editor@bostonkorea.com

2018년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조회수로 본 10대 뉴스

1. 대한항공 보스톤-인천 직항 내년 4월부터
2. 자녀들을 위한 2018 여름캠프 총정리
3. 한국의 바이오붐, 바이오 메카 보스톤서도 후끈
4. '임나일본부' 설 고고학으로 배격한 최초 영문서적 출간
5. 한인 유학생들 한인술집서 성추행 및 집단 폭행 당해
6. 연휴동안 화이트마운틴 인근 93번도로 막고 이민검문
7. 국경순찰대, 뉴햄프셔, 메인서 도로 막고 또 이민 검문
8. 매스주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자 벌써 3명째
9. 렉싱턴도서관서 '한국의 맛' 을 소개합니다
10. 국토부,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발급 거부 법안 서명

1위



남북 정상 회담 및 북미 회담 악화일로로 치닫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세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직도 북미간에는 핵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와 벌이고 있어 향후 전망이 장미빛만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남북철도 연결, 전방 GP 폐쇄 등 상호간의 군사긴장완화의 조치도 실현됐다.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연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최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통해 등 3인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실시한 이유로 거래금지 및 자산 동결 명단에 포함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태다.

전 10시30분 보스톤 공항에 도착한다. 한국 언론들과 미 매스포트는 지난 8월 6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안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총 21만여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의견을 정리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위
대한항공 보스톤 직항 내년 4월 취항
보스톤한인사회의 공통적인 바람이었던 대한항공 인천-보스톤직항로의 길이 열렸다. 내년 4월 12일부터 매주 화, 수, 금, 토, 일요일 보스톤에서 오후 1시 30분 출발해 다음날 오후 4시 50분(한국시각) 인천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14시간이 소요되며 269석 규모의 차세대 항공기 보잉 787-9이 투입된다. 한국에서는 오전 9시 30분(한국시각)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



3위
트럼프 강경 이민법 드라이브
반이민 정책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 거부사유로 삼겠다는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부터 VOX 뉴스가 유출된 내부문건을 토대로 부시행정부 시절 명확히 한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개념을 확장해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 발급 거부사유로 하겠다는 것을 보도했다. 다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한 후 10월 연방관보에 게재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12월 10일 마감된 의견 수렴에는 다른



4위
평창올림픽 및 주의회 결의안
2월 평창올림픽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당초 엄청난 적지를 예상했지만 성공리에 치러졌으며 무엇보다 남북한 및 미국 평화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올림픽이 활용됐다.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의 방문은 4월 남북 정상회담의 실마리가 됐다. 한편 평창 올림픽과 관련 매사추세츠 주의회, 그리고 뉴햄프셔 의회,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평창올림픽 및 남북한 평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미국내에서도 올림픽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다.



5위
중간선거 덴고 등 한인들 출마-마리아 로빈슨 당선
올해는 미 중간선거의 해였다. 특히 상당수 많은 한인들이 연방 하원직에 도전해 여느 때보다 한인 정치인 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연방하원의원 제 3지역구에 나선 한인 2세 덴고 후보는 단연 앞서서 선거자금을 모금하며 기대를 높였다. 서퍽지검장 선거에도 한인 2세 린다 챔피언이 도전하며 한인 정계진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9월 민주당 경선에서 덴고 후보는 불과 125표차이로 낙선했고, 린다 챔피언 후보도 낙선했다. 다만 한인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양아 출신 마리아 로빈슨이 MA주 하원의원에 당선해 선물을 선사했다.



6위
김용현 총영사 부임
김용현 총영사가 지난 2017년 12월 30일 부임했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엄성준 총영사 앞이'를 쉽게 떨치지 못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어찌 보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용현 총영사는 지난 1년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역임했던 김 총영사는 역대 총영사 중 가장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미국 및 아시아 커뮤니티 등과 활발히 교류했다. 한인회의 공백과 관련 코리아워크 등을 추진하며 일하는 총영사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4면으로 계속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3면에 이어서



7위
국경지역 이민자 검문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국경 인근 이민자 검문검색이 5월 메모리얼 연휴 이뤄져 화제가 됐다. 특히 보스턴 이웃 주인 뉴햄프셔의 화이트 마운틴은 많은 보스턴한인들의 방문지 중의 하나인데 이들은 국경 100마일 이내란 이유로 휴가철에 화이트 마운틴 초입에 길을 막고 이민자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들은 뉴햄프셔 등 국경 근처를 기피했다.



8위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매스 바이오컨벤션과 제노스코 신약 개발
 2018 바이오 컨벤션이 보스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바이오 컨벤션은 코리아 웨이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컨벤션에 참가자는 전세계 74개국중 한국의 바이오 관련인원이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였다. 이에 따라 6월 바이오 컨벤션은 한국의 바이오 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회는였다. 특히 유일한 한국 바이오 벤처회사 제노스코는 유한양행과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1조 4천억 기술수출이란 대박 계약을 터트리기도 했다. 바이오컨벤션과 제노스코의 활약이 결합돼 보스턴에 더 많은 한국 제약회사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다.



9위
리얼 아이디 발급
 매사추세츠 주는 올해 3월 26일부터 리얼아이디 발급을 시작했다. 리얼아이디(Real ID)는 9.11 테러 이후 이를 방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이디를 일원화하는 운전면허증이다. 그동안 연방정부 및

레 시행연기를 거듭한 끝에 2020년부터는 리얼아이디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행기 탑승과 정부기관 및 박물관 등 출입을 금지한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3월부터 이를 발급했으며 차량등록국(RMV)은 다시 과거의 긴 줄의 지옥으로 회귀했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 3-4시간 대기하는 기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국은 트리플에이(AAA)와의 협력하 리얼아이디를 트리플에이지점에서도 발급토록 했다. 실제로 차량등록국보다는 트리플에이에서의 리얼아이디 발급이 훨씬 빠르다.



10위
추석 축제 코리아워크
 9월 보스턴총영사관 주최로 추석맞이 축제 코리아워크 행사가 개최됐다. 문학행사, 스타 유현수 셰프 초청 한식 시연행사, 영화, 클래식 연주회, 전문가 초청 북미회담 관련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개천절 행사에는 가장 많은 한인들이 참가했으며 유현수 셰프 초청 한식 시연 행사는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용현 총영사는 이제는 한인사회가 이끌고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워크를 계속 한인사회가 이끌어 나갈 경우 훨씬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위
하버드 아시안 입학생 차별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 미 보수주의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도가 소수민족우대정책, 즉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이다. 당초에는 블랙 및 히스패닉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인학생들의 입학에 제한하는 제도였지만 아시안들의 약진으로 인해 오히려 아시안들의 입학에 제한하는 현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법무부는 2017년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0월들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아시안 같은 소수민족을 위해 학생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어퍼머티브액션의 폐지

를 통해 아시안에게 주어지는 높은 자대를 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다.



12위
아마존 제2본사 선정과 보스턴
 올해 많은 언론들과 미국인들의 관심은 아마존 제2본사 선정에 집중됐다. 5만명의 일자리와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아래 21개 1차 후보도시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최종 후보를 버지니아와 뉴욕에 각각 2만5천 규모로 분산해서 개최한다고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상당 수 언론은 보스턴을 끊임없이 거론해 보스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마존의 제2본사는 분산유치로 인해 실제로는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최종 후보도시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아마존은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평가다.

소중한 분들과 면역력을 더하세요! 정관장을 더하세요!

연말 사은 대축제
 행사기간 : 12월 한달간

Event 1 중복적용 불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홍삼정 120g 증정

Event 2
 \$150 이상 구입시 홍삼탄 마일드 10포 증정
 \$200 이상 구입시 홍삼탄 마일드 20포 증정

Event 3 Buy One Get Next One 50% OFF
 천복정 구입시 2번째 제품은 50% 할인 (선착순 한정 증정되지 않습니다. No additional Gift)
 \$433.66 + \$216.88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전해드립니다.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유영심 전 회장 사랑방 모임 마지막 수업

올해 마지막 노인회 사랑방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9시 30분,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선교회 주차장에는 꽤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노인회 사랑방 커피타임이 시작되는 9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 “(올해)마지막인데 빨리 들 줄 맞춰주세요”. 유영심 전 노인회장(72)의 힘있는 목소리가 교회 넓은 홀 안을 메웠다. 4-5명의 할머니들이 들성 들성 줄을 맞추자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은 맛이다.

유영심 전 노인회장이 지도하는 라인댄스 수업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5명 정도만 참여했으나 여기 저기 앉아 있던 나머지 할머니들도 라인댄스 대열에 참가했다. 넓은 홀 식당 인근 한 켠엔 탁자 커피가 마련되어 있고 찜고구마가 간식거리로 함께 있었다.

흥겨운 몸놀림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참가자가 늘었고 그렇게 한 30분이 지나면서 10명이 훌쩍 넘어서 본격적인 라인댄스 모습이 갖춰졌다. 음악도 조용한 음악과 흥겨운 댄스 음악을 오갔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댄스 체조에 여념이 없는 노인 회원들은 여전히 건강함이 넘쳐났다. 몸이 안좋아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분도 일어나 참가했고 참가 외중에 어깨를 주무르는 사람도 있었다.

12월 19일 수요일 올해 마지막 노인회 사랑방모임은 겨울, 노인 이런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활기찼다. 물론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겨워 그저 바라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곳은 마치 피트니스 클럽 같았다.

그보다 훨씬 이전 커다란 분관 홀 뒤편에 마련된 식당에서는 5-6명의 임원들이 분주하게 점심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유철호 노인회장은 “오늘은 평통에서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 고 밝혔다.

라인댄스 후 일부 노인들은 “이제 어떡해”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영심 전 노인회장이 1월 7일 플로리다로 이주하게 되므로 19일 사랑방이 유회장의 마지막인 것을 안 까닭이다. 다른 할머니는 카드를 건넸다. 유 전회장은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 살짝 이슬이 맺힌다. 바로 테이블을 정렬하고 난타 수업시간이 이어졌다. 난타 강사도 역시 유영심 전회장이었다.

그렇게 11시가 되도록 난타 지도를 마치고 유영심 전회장은 잠시 짬을 낼



유영심 전 노인회장이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19일 열린 마지막 사랑방 모임에서 난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 전회장은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플로리다로 이사한다.

수 있었다. 플로리다로 떠나게 된 이유는 큰 수술을 받은 남편에게 의사가 따뜻한 곳에서 거주하라고 권해서 결심하게 됐다.

1년에 여름철이면 다시 방문해 2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라는 유 전회장은 “보스톤에서 거주한지 48년째로 꼭 50년은 채우고 싶었는데 남편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2년을 앞두고 떠나게 됐다” 며 아쉬워했다.

유영심 전회장의 빈자리는 재능있는 한 청년이 맡아 이어갈 예정이다. 유영심 전회장은 “한국에서도 경험이 많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고 표현했다. 그러나 노인회를 국제선 회원들과 함께 가장 활발한 단체로 만들어낸 그의 열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열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아무도 찾지 않는 한인회관 건물 매각키로

재관위원 18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매각 결정
주차장 갖춘 건물구입 또는 건축에 투자할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이하 재관위)가 지난 3년간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왔던 한인회관을 팔기로 전격 결정했다.

재관위는 전체회의를 벌린톤 소재 뉴장수갈비 한인식당에서 12월 18일 갖고 만장일치로 매각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호 재관위원장, 남궁연 전재관위원장, 안병학, 김성군, 유영심, 박진영 위원과 회관을 그동안 관리해 온 이기환 상록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영호 재관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 “한인회관이 쓰여지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 시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인회관은 비영리단체 대우를 받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까지 다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고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금 회관을 팔아서 변호사 에스프로 펀드 즉 CD 형태로 보관할 예정”이라며 “아무도 찾지 않는 현재의 한인회관보다는 주차장이 있고 모든 한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빌딩을 새로 짓거나 사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노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에서 합당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 가까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부터 재관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성군 변호사도 “한인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노인회, 시민협회 등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면 조건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윤철호 회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인회관이 그렇게 소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를 냈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한인회관을 처분하고 모금활동을 벌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은 “매사추세츠 주택가격이 정점에 올랐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한인회 구성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각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즉 노인회와 같은 단체에서 더 모금활동을 벌여 큰 회관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고 밝혔다. 남궁위원장과 윤철호 노인회장은 재관위 회의 하루 앞서 만나 의견을 나눴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노인회이며 실제로 매달 첫째, 셋째 주 사랑방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어 모일 공간이 누구보다 더 절실하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펀드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체가 노인회로 보인다.

이영호 회장은 “재산관리위원 중



2010년 10월 김주석 전 보스톤 총영사(가운데)가 남궁연 한인회관 건립위원장(좌측 네번째)에게 한인회관 건립 정부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좌로 부터 김은철 영사, 김성군 위원, 유한선 한인회장(우측)



2010년 당시, 새로 입주한 한인회관 앞에서 현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 좌로부터 유한선한인회장, 래리 쥬세피 우먼시 보훈처장, 남궁연 전 건립위원장, 김주석 전 총영사

에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이므로 펀드를 넘기는 순간 해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를 위임 받은 이영호 회장은 조만간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 건물 매매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한인회는 2010년 6월 우먼 캠프(Campbell)스트리트 소재 2층 건물을 26만불을 주고 구입했다. 당초 한인회가 입주해 이 건물을 사용

했었다. 그러나 2015년 김경원 회장 취임 직후부터 사용이 뜸해졌으며 2016년 김경원 회장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거의 빈공간으로만 남아 있었다.

editor@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편집국에서

건물이 아닌 인재에 투자하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인회관재 산관리위원회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한인회관 건물을 매각기로 12월 18일 결정했다. 2010년 26만불을 주고 구입했던 건물은 현재 2배가량 인상된 것으로 위원들은 보고 있다. 비록 한인회가 없어진 2017년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인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다. 한인회관을 일 반적으로 머리 속에 그리면 당장 유대인문화센터 (JCC)나 베트남커뮤니티센터 등을 떠올릴 것이다. 커 뮤니티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 는 센터다.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가진 돈은 적으니 돈에 맞게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돈으로 사실상 대규모 빌딩을 건축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관위는 노인회를 가장 우선적인 펀드 수혜대상으 로 보고 있다. 노인회가 이 펀드를 바탕으로 더 많은 모 금운동을 벌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제적으로도 가장 현 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한인사회는 또다시 노인회관 또 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 체제에 들어간 다. 또다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1977년 한인회관 건립 모금 활동이 시작돼 2010년 건물을 구입했으니 무 려 34년이 걸렸다. 그것도 한인회관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모자란 주차장도 없는 한인회 사무실이었다. 적 어도 상당기간 모금활동을 벌여야 한다.

왜 우리는 건물만 세우려 할까. 한인회관은 미국 전 역에서 화합의 중심점보다는 불화의 발화점이었다. 이 제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다. 건물이 아닌 미래 인재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 어쭙잖은 장학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커뮤니티의 미래에 투자하지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미국 군대의 제도를 일정 정도 접목할 것 을 제안한다. 현재 모은 자금으로 법대 및 사회학 전공

자인 1.5세 2세 중 한국어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선발, 대학원 학비를 전액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학교 졸업 후 4-5년 정도 한인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야 한다. 또한 이들은 방학 동안 중국 커뮤니티 또는 LA 등지의 이미 확립된 커뮤니티 단체들에서 인턴활 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졸업 후 이들 중에 한 명은 그랜트 라이터로서 계속 적인 가칭 '한인회' 의 펀드를 확보하고 법대를 졸업 한 변호사는 한인사회를 위한 옹호활동 및 소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사회학 전공자는 실제적인 소셜서비스 를 제공한다. 공간이 없어 노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인재가 없어 소셜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노인들은 많은 게 현실 아닌가.

퀵아시아인리소스센터, LA의 코리아타운커뮤니티 센터 등 현재 미국사회에서 각종 소셜 서비스 및 커뮤 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은 1.5세, 2세 인재들로 인해 성장해왔다. 보스톤 한인사회는 자연적으로 확보 되지 못한 이제 1.5세, 2세 인재들을 위한 씨를 인위적 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뿌려야 한다.

커뮤니티 활동가로 이들은 한인사회 리더가 되어 한 인회장이 될 수도 있고 한인회를 다른 이민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 수 있다. 과거 샘윤이 ACDC활동을 하다 정치계에 뛰어 들었듯이 보 스톤 한인사회 출신의 정치인도 배출될 수 있다.

한인사회는 현재 노인회를 제외하고 청장년과의 단 절을 겪고 있다. 50대 이하 청장년들은 한인사회 모임 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인회장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 2세들은 한인사회란 커뮤니티에 큰 관심이 없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한인사회에 제대 로된 소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다.

한인이 있어야 한인사회가 있고 한인회관이 있다. 베트남 커뮤니티처럼 한인회관 건립은 2세에게 맡기 자. 한인사회에 인재가 있어야 한다. 한인회란 무엇인가. 한인회관이란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고 시작하자.

editor@bostonkorea.com



재미과기협 주최 2018 경력개발워크숍 (SEED 2018)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강사, 재미과기협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재미과기협 경력개발워크숍 (SEED 2018) 성료

선배들로부터 직장에서의 승진과 종신직 취득 전략 배우고 모의 인터뷰도 시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미국 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연구 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개최한 “ 과학기술전문인 경력개발 워크숍 ” (SEED)에 80명의 박사과정, 조교 수, 초급경력 연구원 등 80명 가량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재미과기 협 본부에서 개최된 SEED 2018 워크숍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FST)의 후원으로 12월 8-9일 2 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좌장인 노스텍사스 주립대 최태열 교수의 개회사와 서광순 회장의 환 영사에 이어 장영진 주미대사관 경 제공사가 축사를 통해 워크숍에 참 석한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했다 . 기조연설자로는 제 13대 재미과기 협 회장과 포스텍 총장, 연구재단 이 사장,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을 역임하고 현재 평양과기대 (PUST)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는 박 찬모 박사가 강연했다.

박찬모 총장은 “과학외교” 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평양과기대 에서 수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던 경 험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소통과 외교

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기조강연 후 국립보건원(NIH) 오 영석 박사, 김민준 교수, 구태웅 특 허변호사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하는 직장내에서의 리더십에 대 한 강의를 펼쳤다. 또한 창업을 희망 하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알라바마 대학 교수이자 성공적인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 중인 전호욱 교수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 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행사 말미에 재미과기협 전임회장 인 유재훈 텍사스 주립대 알링턴 캠퍼스 교수는 그간 겪어온 시행착오 와 성공을 위한 노력 등 과학자로서 살아온 인생 전반의 경험을 강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SEED워크숍에서는 과학/공학/산업 부문별 강연 뿐아니라 참석 자 전원이 참여하는 그룹 세션과 네 트워킹을 통해 동료, 선배들과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유대관계를 강화 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승진, 종신 직 취득 등을 위한 실제 인터뷰에 대비, 선배 전문가들과 “모의 인터뷰 ” 를 통해 장단점에 대해 평가를 받 고 자신감을 고취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겨울철 당일치기 여행으로 좋은 장소 5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추운 날씨에 외출이 쉽지 않다. 주말이나 휴일을 대비해서 거창한 여행이나 겨울 스포츠 활동을 계획하지 못했다면 간단한 당일 치기 여행은 어떨까.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흰눈으로 덮힌 유리 온실 속에서 고요한 한때를 보내보자. 스포츠 파크에서 간단한 겨울 스포츠인 튜빙을 즐기거나 뉴잉글랜드 출신의 유명 화가나 작가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다음은 보스톤닷컴(boston.com)에서 선정한 겨울철 당일치기 여행 장소 5곳이다.

1. 데코르도바 조각 공원 및 미술관(The DeCordova Sculpture Park and Museum)

스노우 스톰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맑은 새소리가 울리는 고요한 조각 공원은 새하얀 탐험 장소가 된다. 미술관에서는 주말마다 스노우 슈(snowshoe)를 신고 진행되는 90분짜리 투어를 제공한다.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온가족이 참여하기에 좋다. 투어를 마친 후에는 연못이 내다보이는 미술관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로 공풍 얼어 붙었던 몸을 녹일 수 있다.

51 Sandy Pond Road, Lincoln, decordova.org.

2. 라이만 식물원 & 음악원(Lyman Plant House & Conservatory)

스미스 칼리지의 식물원 일부인 라이만 식물원 및 음악원은 유리로 둘러싸인 온실로 고요하고 온난하다. 추위로 부터 벗어난 식물 삼천여 종 이상을 만날 수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몇 안되는 온실 중의 하나이다.

16 College Lane, Northampton, smith.edu.

3. 노먼 록웰 박물관(The Norman Rockwell Museum)

미국의 유명 화가 노먼 록웰의 박물관으로



데코르도바 조각 공원 및 미술관(The DeCordova Sculpture Park and Museum)

세계에서 가장 큰 록웰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998개의 원본 그림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묘사한 작품 및 다양한 커미션 광고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록웰의 스튜디오는 겨울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따뜻한 계절에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한다.



9 Glendale Road / Route 183, Stockbridge, nrm.org.

4. 뉴잉글랜드 스포츠 파크(New England Sports Park)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튜빙 언덕이 있는 곳으로 무려 12개의 레인을 튜빙을 즐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 공원에서 제공하는 천연



개의 튜브 중 하나를 타고 레인을 따라 눈썰매를 탄 이후에는 콘베이어 리프트를 타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12 S Hunt Road, Amesbury, newenglandsportspark.com.

5. 올드맨스(The Old Manse)

1770년 지어진 곳으로 랄프 왈도 에머슨과 다니엘 호손과 같은 문학가들이 잠시 살았던 집이다. 호손과 에머슨이 대작을 집필했던 책상 뿐만 아니라 창문에 쓰여진 호손과 그의 아내의 시가 남아있다. 멋지게 조성된 집 근처 공원을 따라 겨울 산책을 하다보면 첫번째 독립전쟁이 일어난 노스 브릿지에 금방 도착할 것이다.

269 Monument Street, Concord, thetrustees.org.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2 • KBS1 • MBC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가톨릭방송) / ETN / 벵쿠TV / 이엔트TV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참가자 전원이 수상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노래대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와 가요 '꿈을 그린 노래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꿈을 그린 노래대회' 를 개최해 독창, 중창, 합창 3개부문 62개팀 약 300여명의 참가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학부모회, 이사회 및 교사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 18회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다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요, 창작동요는 물론 가요로도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대회의 이름도 '꿈을 그린 노래대회' 로 바꾸었다. 작년 대회에 이어 이번 18회 대회에도 4개 팀이 가요로 참가했으며 이중에 한 팀이 전체대상, 다른 한팀은 가족중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위해 특별초청된 보스톤필하모니아 장수인 단장은 심사평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며, 모두가 너무 열심히 잘해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사했다. 아주 작은 세심한 단위까지 나눠 채점해야 순위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고 이번 노래대회를 평했다.

이중에서도 두드러진 실력을 자랑한 전체 대상은 독창 부문에서 '그중에 그대를 만나' 를 부른 고려반(중급-1과정) 한예린 학생과 '바람의 빛깔' 을 부른 놀부반(기초-4과정) 한지나 학생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중창부문에서는 '뱃꽃팝콘' 을 부른 안효기-안현기 팀 이 차지했다.

이번 노래대회를 주관한 한 학부모는 "한지나 학생의 '바람의 빛깔'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집에 가서 그 노래를 찾아 몇번을 반복해서 들었을 정도였다" 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모는 집으로 가는 중 유튜브에서 이선희가 부른 '그중의 그대를 만나' 를 찾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뱃꽃팝콘' 도 한번 들으면 바로 새겨질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비록 전체 대상은 못 받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뛰어난 노래실력과 안무를 겸했던 학생들은 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독창 기초1-2부문에서는 '잉잉잉' 을 부른 안수민, 독창 기초3-4부문에서는 '썩트네' 를 부른 민향기 학생이 수상했다. 독창-초급/중급부문은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를 부른 송연(고려반), '내 마음의 수채화' 를 부른 안세인(신라-1) 학생이 받았고, '우리 엄마 이름은 아줌마' 를 부른 유리-유하스톤즈 팀과 '사랑을 했다' 를 부른 정다인-정필립-정이안 팀은 중창-가족부문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노을' 을 부른 기예린-강다예-배지원-배지훈 팀은 중창-친구부문의 대상을, '피노키오' 를 부른 신라 1& 2반과 '돼지엄마' 를 부른 흥부반 & 놀부반이 합창부문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 심사는 보스톤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장수인 단장, 김효정 학부모 회장, 소프라노 김은정, 소프라노 서채송, 2세 대표로 박지인 심사위원이 일 반 항목을, 학교의 음악교육부 교사들이 기술부문 항목을 맡아 세밀하게 점수를 산정했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기초준비반인 병아리반의 어린 학생들과 중급과정 학생들까지 모두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아름다운 동요와 가요가 전하는 한국의 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꿈을 그린 노래대회' 를 개최해 독창, 중창, 합창 3개부문 62개팀 약 300여명의 참가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전체대상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이 함께한 모습

통과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고 학부모회 김효정 회장은 "오늘 2세들의 꿈을 노래로 그려보는 아름다운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참가 학생들, 그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오늘 대회가 모두에게 즐겁고 기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신민영 음악교육부 리더교사의 사회와 윤자영 교사의 반주에 맞춰 진행

된 이번 대회는 약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고 대회를 참관하며 시종일관 미소와 힘찬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격려했으며 "정말 멋지고 기쁜 행사를 참관했다." 며 입을 모았다.

뉴잉글랜드 지역 최대규모이자 개교 44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주간의 연말 방학을 갖고 내년 1월 5일에 수업이 재개한다. 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019학년도 봄학기의 등

록은 1월 5일부터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에서 등록서를 받거나 학교 교무실에서 등록할 수 있다.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일부 과정에 한해서 약간 명만 입학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 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매사추세츠 노인 세명중 한명이 우울증

뉴잉글랜드에서는 노인 1/4이 우울증 가벼운 운동, 사람들과의 만남 필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노인 중 약 1/3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약 1/4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가족이 모이는 연말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이다.

유매스 보스톤 산하 존 맥코맥 연구소가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매사추세츠 주민 중 31.5%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3년 전의 28.6%보다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우울증의 범위와 증상은 다양하다. 계절에 따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가벼운 우울증부터, 자살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우울증도 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들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좋다고 말한다.

커네티컷, 뉴햄프셔, 버몬트 등 다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노년층의

우울증 비율이 30%를 밀돌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 (32.6%)와 메인 (33.7%) 주민이 뉴잉글랜드에서 매사추세츠 주보다 노년층의 우울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베스 더간 교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위협이 되는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올해 77세인 비버리 데이글은 “미망인으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고 말했다

말했다.

올해 77세인 비버리 데이글은 지난 주에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데이글은 몇 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모였으며 “남편이 있었고, 3명의 자녀와 강아지와 고양이도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와서 모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데이글만 남게 되었다.

데이글은 “미망인으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나는 나 혼자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숙자가 14.2% 증가했다

MA주 노숙자 빠르게 증가

뉴욕에 이어 노숙자 증가율 가장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노숙자의 비율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낮은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숙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의회에 제출된 2018 노숙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숙자가 14.2% 증가했다. 2,503명이 새로 노숙자가 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다른 주와 비교하여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숙자는 32.7%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 주보다 노숙자가 더 많이 증가한 주는 46.8%인 뉴욕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는 노숙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18년에 뉴욕에서는 인구 1만명 당 57명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44명이 노숙자 경험이 있다” 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역대 최대 여행객 연말에 움직인다

미국 전체 1억명 이상 연말 여행 계획 보스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말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앱이다. 그만큼 올해 연말에는 많은 차량이 도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리플에이(AAA)에 따르면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자동차를 운전할 계획이다. 트리플에이는 “대략 1억 2백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꾸러 차를 몰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4.4% 늘었다. 트

리플에이가 2001년 이후 연말 이동 인구를 추적한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사람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19일 수요일에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특히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오후 늦은 시간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기록과 최근 여행 경향에 따른 분석이다.

교통 분석가인 트레버 리드는 “올해 연말 시즌에는 기록적인 수준의 인파가 도로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요 도시 부

근에서 교통 혼잡이 심할 것이다”라며 “기존 출퇴근 시간을 피해, 밝을 때 최대한 일찍 출발하거나 적어도 아침 출근 시간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일 목요일은 미국 전역에서 교통 정체가 제일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수요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도 교통 정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리플에이는 밝혔다. 특히 금요일에 비 예보가 있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245만 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1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는 수요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도 교통 정체는 계속될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 FT 선정 올해의 단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올해 지구촌의 가장 핫한 이슈는 북미정상회담과 미중 무역전쟁일 것이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에만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미중 무역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권위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에 빠졌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며 올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 함정을 선정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른다.

이는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펠로폰네스 전쟁은 당시 패권국가인 스파르타가 새로 부상하는 신흥세력인 아테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단어는 묻혀 있다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12년 FT에 한 기고에서 이 단어를 언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윈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한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시 주석의 이같은 호소에도 미국은 올해 대중 관세폭탄을 터트리며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양국은 내년 2월까지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대신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를 공격하는 등 중국 첨단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것이다.

sinopark@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미 기준금리 2.5%로 인상 내년 금리인상 전망은 하향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2.25~2.50%로 25bp(1bp=0.01%p) 인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

FOMC는 성명서에서 "약간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약간'은 기존 성명서에 없던 표현이다.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요인도 연준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을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양적긴축 기조에 대해서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소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FOMC위원들의 금리전망표(일명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금리인상 횟수 예상범위 중간값은 3회에서 2회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내년 말 금리 전망범위 중간값은 3.125%에서 2.875%로 하향됐다. 2020년 말의 중간값은 3.375%에서 3.125%로, 2021년 말의 중간값도 3.375%에서 3.125%로 내렸다.

FOMC 위원들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격인 '장기적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3.000%에서 2.750%로 하향됐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확장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다.

이같은 새로운 금리전망에 따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면, 미국의 내년말 금리는 연준 정책위원들이 중립금리로 추정한 수준을 약간 웃돌게 된다.

FOMC 성명서는 경제전망에 미치는 위험이 '대체로 균형잡힌'(roughly balanced) 상태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다만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을 모니터하고, 이들 요인이 경제전망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평가할 것"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덧붙였다.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3%, 2020년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내년 2.5%, 2020년 2.0%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 3.5%,

2020년 3.6%, 2021년 3.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연준은 관측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 2.0%에서 소폭 내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연준의 목표치인 2.0%에 잠시 도달하기도 했다.

한편 초과 지급준비금 적용금리(IOER)는 기준금리와 달리 20bp만 인상한 2.40%로 결정됐다. 기준금리 목표범위 상단에 비해 10bp 더 낮게 조정했다. 기준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목표범위 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francis@news1.kr

페이스북,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업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150여개 기업들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 검찰은 페이스북을 직접 기소하기까지 했다.

칼 레이슨 미 워싱턴DC 검찰총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와 제3자 애플리케이션 등이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해 사용자들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이슨 총장은 특히 워싱턴DC 거주자 가운데 절반가량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페이스북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미 대선과정에서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소재 데이터 분석업체 CA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이 가입자 동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150개 기업들에 개인정



연이은 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0년 시작된 정보 제공 계약은 대부분 작년에 종료됐지만 일부는 올해까지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MS엔 가입자들의 '친구' 목록을,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엔 비공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아마존은 페이스북 가입자 이름을, 야후는 가입자 친구들의 게시물도 볼 수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페이스북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자사 제품 광고에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를 업체들에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도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페이스북의 사적인 메시지에 액세스한 적이 없고, 이를 위한 권한을 페이스북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seunghee@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佛 시리아에 남겠다, 트럼프 결정에 반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프랑스 정부가 19일 미국의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둔 병력을 유지하며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IS 무장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지만 시리아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며 "남은 지역에서 IS를 확실히 패배시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유럽연합(EU) 담당 장관도 이날 CNews 방송에 출연,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IS에 맞서는 동맹군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11월4일(현지시간) 터키 접경지대인 시리아 북동부 다르바시야에서 이동하고 있다

령은 트위터를 통해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전격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내걸어 온 공약이지만 시리아 내전 과정에

서 미군이 지원해온 쿠르드 민병대에게도 당일 통보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져 프랑스·영국·호주 등 동맹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

'시리아 철군' 트럼프 미, 중동의 경찰 되고 싶지 않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낳은 미국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IS는 과멸했다"며 "미국은 중동의 경찰이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동의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나. 귀중한 생명과 수조 달러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쓰고 싶은가? 그곳(시리아)에 영원히 있고 싶은가?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싸울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철군 결정이 러시아와 이란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는 미국이 떠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우리 없이 IS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 IS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이제 과멸했다(doomed)"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리아를 떠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며 "나는 수년 동안 시리아 철군에 대해 캠페인을 해왔고 6개월 전 공개적으로 철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기습 철군이란 세간의 비난을 반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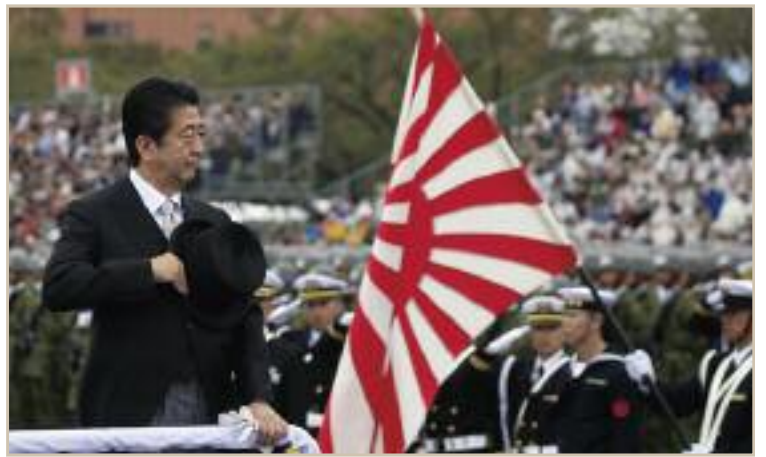
한 철군을 지시했다.

시리아 동부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IS 소탕작전이 전개되는 중에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자 동맹 세력은 한마디로 '대훈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S는 시리아에서 점령지를 대부분 상실했으나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 하진, 수사, 사야파 등에 남아 저항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하고 있다

미, 일 '방위계획 대강' 개정 지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18일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리 지역과 국제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동맹국과 협력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배치·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각 의결했다.

일본의 개정 방위계획 대강 및 차기 중기방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 만든 헌법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위대는 지난 70여년간 △일본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격용 무기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잇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왔고, 그 결과 "전수방위 원칙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ys4174@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센터 1-877-689-1541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따뜻한 물 위에서 잠을 잡니다
온수의 힘을 믿으니까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Comfort-Mate™

-  **배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좌우 온도를 각각 1도까지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분리난방 기술로 시로가 원하는 최적의 온도에서 쾌적한 수면을 즐기세요
-  **배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전지배의 후스가 없는 무독성 소재의 매트와 순면 소재의 매트 커버가 최상의 청결성을 제공합니다
-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모던함으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완성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기세요
-  **2년 무상 품질 보증 프로그램**
경동나비엔 마수업소에서 모든 제품을 2년 무상 보증해 드립니다



• 한국 보일러 제조사 중 매출액 1위(2017년) 온수난방 전문 회사(주) 기온 • 한국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5.8% 차지(2018년 상반기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정원 수사하다 좌천, 박형철 비서관은 왜 울컥했나?

'공안통 검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검찰 떠나 40여분간 막힘없이 설명...반박엔 자신·김태우엔 몸 낮춰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와 관련해 전날(19일) 처음으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연단에 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렇게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김 수사관 첩보 목록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논란 서류파일을 한 손에 들고 연단에 선 박 비서관은 기자들을 둘러본 후 간신히 눈물을 참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첩보 목록을 하나씩 언급하며 설명해 나갔다.

보고가 남아있지 않아 기억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박 비서관은 10개의 첩보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 박 비서관이 '법과 원칙'을 언급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비서관에게서 '면도날 검사'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말은 검사들이 주문을 외우듯 자주 쓰는 말이다. 검찰을 떠난지 2년이 됐지만 그에게서 옛 친정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박 비서관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지낸 선거법 전문 '공안통' 검사로,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지냈다. 당시 팀장은 대검 중수1·지과장 등을 지낸 '특수통'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뒷선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 비서관은 윤 팀장과 함께 징계에 이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아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비서관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유지를 맡아오다 2016년 1월 7일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그와 함께 일했던 한 검사는 당시 "검찰 조직내에서 누구도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의 능력에는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며 "선거법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박 비서관을 평가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한 박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수사와 관련해 좌천성 인사를 받아도 웃으며 공판 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박 비서관이 이날 청와대 연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에서 울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사찰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한다"며 "사찰은 지시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사찰이다"라며 "저희는 김 수사관에게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이어 원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이끌었던 선거법 전문 공안통 검사가 자신의 부하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

의 제보를 반박하기까지 이른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더욱이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이 '서운하다' '분하다'고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근신처분을 받은 김 수사관에게 일일상황보고를 받는 등 근태관리를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silverpaper@news1.kr

검찰, 김태우 스폰서 최모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4일 송치 16일만에...오전 10시부터 9시간 이어져 뇌물관련 자료 확보...檢 "靑 특감반 사건과 무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58)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20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과 관련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기 과천시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7시께 마무리되었다.

앞서 경찰은 방음터널 전문공사 업체 대표인 최씨가 2010년께부터 친분이 있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할 김모씨(51)에게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건넸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2011년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후 상당 기간 국토부 공무원들과 접촉이 끊기다가, 김씨와 친분이 쌓여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씨도 영업 목적으로 김씨의 도



움을 받기 위해 접근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 전원 교체 촉발시켰다. 지난 11월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인 최씨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했을 당시 최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김 수사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씨와 김 수사관의 관계, 이 사건이 특감반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수사관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

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김 수사관이 현재 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점과 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이 수원지검인 것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날 오후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조 수석 등 3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장에 담았다.

son@news1.kr

청와대 김태우 첩보보고서 파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청와대는 20일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를 파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제가 된 김태우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 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

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태우의 첩보보고서는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작성한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초안 수준의 첩보보고서 파기와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공공기록물법이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1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rgus@news1.kr



12·19 대책 이후 시장은, 금매물 쏟아져나올까 촉각

"3기 신도시 발표로 대기수요들 여유 생겨" 세금·금리인상 등 조급해진 집주인들 금매물 가능성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주택 시장의 연말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주택시장 영향과 집값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을 포함해 총 41곳의 택지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택지는 서울과 거리가 2km 이내에 있어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편이다. 여기에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도 동시에 추진된다.

서울 주택시장은 그동안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데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기다리느라 매수대기자들이 관망이 지속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져 왔다. 소위 '펜

찰은 땅'이 나오는지 보고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겠다는 거였다. 예전엔 집이 부족하다는 조바심에 매수를 서둘렀지만 공급이 늘면 더이상 조급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공급계획과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기수요들이 앞으로 더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개된 택지들이 서울 접경이라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 악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 곳이 발표되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강남 고급 유효수요의 분산은 어렵겠지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라 서울 20~40대의 내집마련 수요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적인 여유를 갖게 된 매수대기자들의 관망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서울 주택시장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3575건)은 10월(1만158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달엔 더 줄어들어 18일 기준 1578건에 머물러 있다. 하루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87.6건에 그쳐 100건도 채 안된다.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량이 100건이 붕괴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졌던 2013년 7월(총 2118건, 일평균 68.3건) 이후 5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거래가 계속 줄면 가격 하락압력이 커져 집값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보유세가 본격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보유 부담감을 느낀 집주인들을 중심



서울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으로 금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내년까지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주 0.05% 떨어져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로 5주째 하락했다. 감정원

측은 집값이 하락과 횡보를 거듭하면서 낙폭을 점차 키우며 장기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미 연초 시세까지 떨어진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며 "계속된 가격 조정에도 매수세가 불지 않으면 부담감에 못이겨 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홍영표 유치원3법,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통해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차질 없이 처리돼야"

(서울=뉴스1) 박기호, 나혜윤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안 처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유치원3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며 "지난번 정기국회 때처럼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지원이 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미국이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오늘과 내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와 한미 워킹그룹간 2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스플로러 보러가기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서비스의 차량 승차공유 서비스(카풀) 논란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상생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화협이 만들어질 수 있게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네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50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권 대출 규제를 다시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급증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goodday@news1.kr

정의(justice), 미 웹스터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인종적 정의(Racial justice),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



미국 미러엄 웹스터 사전이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정의(justice)'를 선정했다

웹스터의 피터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16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서) '정의'를 검색한 횟수가 2017년 대비 74%나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콜로프스키는 특히 "'정의'는 지난 1년 간 발생한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꾸준히 상위 20~30위 안에 들었다"면서 "사람들은 올 1년 내내 '정의'를 생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웹스터 사전의 '올해의 단어'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트럼프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뤄졌다.

소콜로프스키는 "올해의 단어

가 되려면 검색어 유입량이 많고 검색 횟수가 크게 증가해야 한다"면서 "마약 범죄 신고, 오피오이드 중독, 대마초 규제 완화, 테슬라 조사, 로버트 뮐러 특검 조사 등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정의'를 검색한 횟수가 2017년 대비 74%나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스터는 이밖에 '에피파니'(Epiphany, 방탄소년단의 타이틀곡), '민족주의'(nationalism,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2일 텍사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때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칭함), '매버릭'(maverick, 독불장군이란 뜻으로 지난 8월 숨진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별명) 등을 올해 검색 횟수가 급증한 단어로 꼽았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유독한'(toxic)을,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디셔너리닷컴은 '오보'(misinformation)를 각각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ngela0204@news1.kr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랍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NEW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폴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폴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폴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NEW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 연매상 \$250,000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Quan Xiao
617.504.2125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37 Lexington Drive
Acton, MA
Asking Price: \$799,9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Price: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171 Littleton County Road
Harvard, MA
Asking Price: \$2,750,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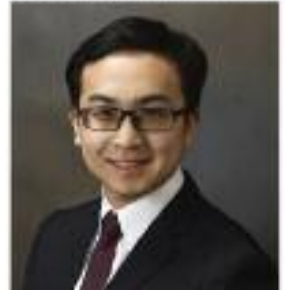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Price: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Tracy Qin Zhao
401.369.2227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Carter Road
Burlington, MA
Asking Price: \$799,000
Listing Agent: NJ Kim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Commercial Lease
17 Pelham Street
Newton, MA
Lease Price: \$4,500
Listing Agent: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reet
Boston, MA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Condominium
10 Charlesgate E - Unit 304
Boston, Back Bay, MA
Asking Price: \$1,1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八 (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方舟)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八) 명이라
 who disobeyed long ago when God waited patiently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built. In it only a few people, eight in all, were saved through water. - 베드로전서 3:20.

서울에 있는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한 해 평균 5조6천억원에 육박했다.

전 세계에 1천만명이 넘는 팬을 거느린 K-팝스타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소비재 판매가 늘어나 수출 대기업 활동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는 2013년 데뷔이후 BTS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해마다 79만6천명, 수출증가 효과는 11억1,700만 달러(의복, 화장품, 음식 등)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6%, 전체 소비재 수출액의 1.7% 수준.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한 해 평균 창출하는 국내 생산효과는 4조1,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4,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기업의 평균 매출액(2016년 기준 1,600억)의 9~26배 수준.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5년동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확대될 경우 2023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총 41조8,600억원에 이르고 14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수 야권 내의 친박·비박(親朴·非朴) 싸움은 가히 “생태적 불치병(不治病)

) 수준” 이란다.

그 싸움으로 그들의 대통령을 잃고 정권도 넘어갔는데 야당으로 쪼그라들어서도 여전히 피터지게 싸운다.

좌파 정권의 득세로 수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친박(親朴)·비박(非朴)은 ‘네 탓’ 을 들먹이며 그들만의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에 의하면 이제는 ‘친박당(親朴黨)’ 까지 거론하며 피터지게 싸운다.

집권 세력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야권에 기대가 조금씩이라도 살아나가는 싶더니 이제는 더 싸운다.

이젠 ‘친박당(親朴黨)’ 까지 거론하며 싸운다. SNS상에서는 ‘박근혜 탄핵’ 과 관련해 이른바 복당파 인사들에 대한 저주에 해당하는 인격살인(人格殺人)까지 횡행한다.

일부 지상(紙上)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안에서 복수와 부활의 메시지” 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등장한다.

지금 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친박·비박(親朴·非朴) 싸움이냐고 지탄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는 짓어라 우리는 싸운다’ 는 식이다. 때로는 설혹 이들이 정권을 찾는다 해도 저런 아집과 독선으로는 지금의 집

권세력과 무엇이 다를 것인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단다.

어쩌면 영애의 몸으로 인생의 최악을 체험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반의 동정과 안타까움에 동조 또는 편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셈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자신들의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에서 밀려나면 들이닥칠 불이익이 자신들을 전투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논리와 이성으로 막을 수 없다면 실컷 싸우게 할 수밖에, 피터지게 싸우되 다만 그 결과엔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당이 오는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이어야 한다. 전당대회가 싸움터이면서 전환점이어야 한다.

친박(親朴)이건 비박(非朴)이건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당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은 당원과 국민 앞에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해 일체의 파벌적 행태를 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말로만해서는 안된다. 서약의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당원(黨員)앞에 선서해야 한다.

八(팔)과 人(인)은 절대적 관계가 있다. 人은 지상(地上)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고 八은 보다시피 人이 끝나는 것. 저 세상 사람인 것을 강조한다.

人은 땅위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八은 지상(地上)의 삶이 끝나고 천상(天上)의 삶으로 옮겨 진다는 것.

해서 땅에서 사는 것은 몸(肉)이 산소를 호흡하고 해서 1~7(一~七)이 인간의 육체를 관리하고 8~10(八~十)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릴 수 있게한 영생책(永生冊)이 “성경(聖經): The Bible” 이다.

1주일이 7일인 것은 땅에서 사는 육체를 우선 대우하는 반면 8(八)은 그림처럼 人(인:사람)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八, 즉 人→八로 숨이 끊어지나 하나님이 그 영혼(靈魂)을 식구삼아 영원토록 천상생활(天上生活)을 하게 하시는 것. - 영생(永生: Eternal Life) -

따라서 영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임무가 十(십자가) 사랑,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The Holy God),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그리고 하나님의 연락병이신 성령(聖靈:The Holy Spirit) 곧 삼위일체 하나님 식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요한복음 3:16.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금주의 LISTINGS



Boston 주변의 바쁜 지역
downtown 10분거리
성업중인 laundromat

ASKING \$450,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

ASKING \$170,000



NH 대형 몰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

ASKING \$150,0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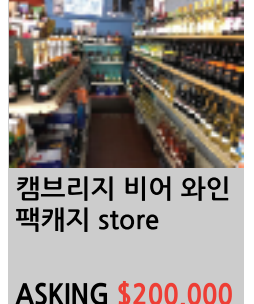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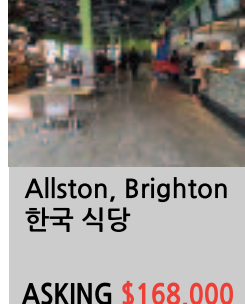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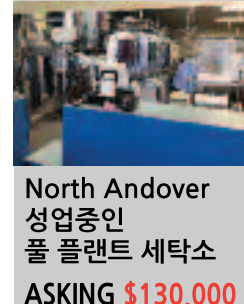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배이치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연합회	781-424-5269
F자민정재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펀	617-787-1735
헤어 크레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양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논팩트덴탈(아너스)	617-871-1482
퀸지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이비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방뉴스TV MEM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독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Pauline Catholic Parish of Boston

<판공 및 연말 연시 미사 시간 안내>

판공성사
12월 9, 16일 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 (월) 8pm

성탄절 행사
12월 25일 (화) 12:15pm

성탄절 미사
12월 25일 (화) 3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화) 11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rcb@gmail.com
www.stcatherin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권 전통상 대머 (비밀상, 등비)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전통상가, 전통상 내 비공개 상권의 마음 (비밀상, 등비)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Holiday Sale :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품 마사지체어 Holiday Special Sale

고급 안마의자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하나 더 FREE



30명 한정

무료증정

INADA DREAMWAVE, 파나소닉 MAJ7, MA73, BRIO 의자 구입시에만 SOL 안마의자 (\$2,000 상당) 증정 가능합니다

오래된 안마체어를 가져 오시면 새 안마구입시 크레딧 드립니다!

무료 딜리버리 + 완벽한 설치 + 최고의 서비스!

전문 기술자 상주 최대 5년 워런티 보장!



INADA NEST \$125 /월 45개월 + Tax	INADA FLEX 3S \$125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70 \$81 /월 60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OREST OR 5000 \$114 /월 45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152 /월 36개월 + Tax	FUJIIRYOKI FJ7900 \$148 /월 3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ANASONIC 30006 \$1300 Floor Model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ORDER NOW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Bethel Health - NY

Bethel Health - NJ

PA Branch

MD Branch

Mattress- NJ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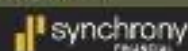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Synchrony Financial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승인 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PMC:더 벵커' 하정우X이선균의 지독한 '미션 임파서블'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지독한 '미션 임파서블'이다. 하정우와 이선균이 주연한 영화 'PMC:더 벵커'가 끊임없이 인물들을 절벽으로 몰아 세우는, 색다른 전투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하정우는 "이러한 소재, 이런 시나리오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김병우 감독과 '더 테러 라이브' 찍으면서 좋은 연 맺은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영화를 선보이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서 시나리오 작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는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데, 계속 매년, 매년 관객들을 만나면서 더 재밌는 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진행형인 저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영화에 대해 설명했다.

'PMC:더벵커'는 글로벌 군사기업(PMC) 블랙리저드의 캡틴 에이헵(하정우)이 미국 CIA의 의뢰로 거액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작전장소인 DMC 지하 30M 비밀벵커에 뜻밖의 인물 북한 '킹'이 나타나면서 벌어

지고 작전을 변경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하정우가 주인공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군사기업의 핵심팀 블랙리저드의 캡틴 에이헵 역을 맡았고, 이선균이 해외에서 최고의 교육을 마친 북한의 엘리트 의사 윤지의 역을 맡았다. '더 테러 라이브' 김병우 감독과 하정우가 2번째로 함께 한 작품이다.

김병우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의 경험이 이번 작품에 도움이 됐다면서 "'더 테러 라이브' 개봉하고 실책하고 놓친 것에 대해 점검했다. 제 결론은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나리오를 쓰게 됐을 때 마지막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끝나면 어떨까, 두 명으로 컷아웃이 되게 하면 어떨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PMC: 더 벵커'는 독특한 촬영 기법이 현장에 있는 듯 실감을 주는 액션 영화다. 김병우 감독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 객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에이헵의 옆에서 호흡했으면 좋 다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까, 촬영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했다. 모든 것

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은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본 다면서 "정우씨가 생각한 것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 감독님도 후반 작업, CG 입고는 처음 봐서 촬영 후에도 감독님이 많은 일을 하셨구나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의사로서 북한말로 대사를 소화한 것에 대해 "저도 쉽지 않았고, 전문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억양 위주로 힌트를 주셔서 감정이 들어갈 때 일괄적인 언어가 돼서 걸렸다. 지금도 관객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실까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억양은 너무 튀지 않으면 끌고 가려고 했다"고 자신만의 고민을 밝혔다.

하정우 역시 영어로 대사의 대부분을 소화했다. 그는 "최근에 '아가씨'에서 일본어 대사를 하고, 오래 전에 '두번째 사랑'을 경험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중요한 순간에 다이얼로그 선생님이 오셔서 발음이 그게 아니라고 할 때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다. 차갑게 그것만 집어내고 가시더라"고 원망해 웃음을 지었다.



공개된 영화는 숨쉴 틈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터지는 벵커 속에서 위기에 처한 캡틴 에이헵이 팀원들의 생명과 자신을 구해야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악전고투 하는 과정을 신선하게 담았다.

eujenej@news1.kr

12월 23일 - 12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 운수: 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야외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괜찮아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소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히려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깨끗이 정리하자니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9일 주의.

범띠 | 내 편을 들어주는

- 운수: 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토끼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용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 운수: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미미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5일 길일, 23, 29일 주의.

뱀띠 | 잠시 생각을 접어도도록

- 운수: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도도록 하세요.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넘칠때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기본적인 경우와 예외를 지키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말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 운수: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단단히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기라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5일 주의.

양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9일 주의.

원숭이띠 | 두 배의 수익을

- 운수: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이 차츰 해결됩니다. 지금 온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람 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닭띠 | 병 주고 약주는

- 운수: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적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7일 길일, 24, 25일 주의.

개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 운수: 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 금전: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돼지띠 | 앞에서 끌어주고

- 운수: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7
올스톤에 있는 오빠스시입니다. 스시일 배우면서 오래 같이 일하실분,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59-8429

8/17
Allston에 있는 bbq chicken에서 서버를 구합니다. 저녁에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서버를 구합니다. Email, am@bbdotqboston.com

'커피프렌즈' 유연석 · 손호준 · 최지우 · 양세종

제주서 보낸 감성샷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tvN '커피 프렌즈' 출연진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플라로이드 스틸컷이 공개돼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tvN '커피 프렌즈'는 유연석과 손호준이 제주도의 한 감귤 농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절친한 두 사람이 올 한해 동안 진행했던 동명의 기부 행사 '커피 프렌즈'에서 시작했다. 직접 트레일러를 몰며 손수 준비한 음료를 나눠주며 원하는 만큼 커피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기부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내년 1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커피 프렌즈'로 시청자를 찾는다. 두 사람은 커피와 브런치를 함께 파는 카페 사장으로서의 활약을 예고한다.

19일 공개된 플라로이드 현장

스틸에는 '커피 프렌즈'에 출연한 유연석, 손호준, 최지우, 양세종 4인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카페 사장으로 완벽 변신한 유연석은 감귤 농장을 배경으로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어 훈훈함을 자아낸다. 또 손호준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식빵을 바라보고 있어 웃음을 더한다.

이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약을 앞둔 최지우는 브런치 카페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복장과 따뜻한 미소로 눈길을 끈다. 마지막으로 양세종은 감귤이 담긴 찻잔을 들고 과즙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이 네 사람의 사진은 서로가 서로를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이들이 보여줄 케미에 궁금증을 모은다.

'커피 프렌즈'를 연출하는 박희연 PD는 "유연석, 손호준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최지우,



양세종씨를 직접 초청해서인지 촬영장에서 네 분의 호흡이 너무 좋았다"며 "네 분 모두 스타덤 없이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며 특별한 촬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출연진 간 케미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유연석과 손호준, 그리고 커피로 따뜻한 웃음을 전할 tvN '커피 프렌즈'는 내년 1월4일 오후 9시 10분 처음 방송한다.

ichi@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라디오스타' 이특 '제대 앞둔 규현, '라스' 얘기는 안 해'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규현을 언급했다.

이특은 19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같은 그룹 멤버 규현이 내년 제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특은 "규현이 (MC로 활약했던) '라디오스타' 얘기는 안 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그는 "규현이 입에 담지를 않는다"라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라디오스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들어갈 지리가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특은 "규현이 구라라인에서 나PD라인으로 갈아타지 않았나 싶다"라며 "나영석 PD와는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lll@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싸이의 작명스타일

유튜브가 생긴 이래 전무후무한 조회수를 기록한 노래, 어느 나라를 가도 남녀노소가 따라하는 노래, 가 바로 우리나라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 이다. 필자는 방송 녹화차 튀니지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강남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강남스타일' 이 어느 나라 노래인지 그 아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에게 싸이가 재미있는 가수인 이유는 역시 그의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 때문이다. 그는 대구 사나이다. 부산 대구 등 영남지방에서는 이름의 끝자만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하여 필자의 처가쪽 친지들은 수영이를 '영아', 미선이를 '선아'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또 하나 대구에서 함경도에 이르는 한반도의 동쪽 지역에서는 받침 'ㅇ' 을 이중모음으로 분해시키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어린 시절 동네에는 '수메이' 란 사람이 있었다. 필자는 도대체 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다. 그냥 '수메이' 가 아니라 '-메이' 부분이 마치 영어 boy 를 발음

할 때처럼 '메' 부분이 약간 길고 '이' 부분이 아주 짧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되고서야 그 발음이 '수명' 이란 이름이 있음을 알았다. 뿐만이 아니다. 필자의 아버지는 필자의 삼촌을 늘 '기서이' 라고 하셨다. '서' 에 비해 '이' 는 마치 돼지 꼬리처럼 짧게 입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발음이다. 작은아버지 이름 '기성' 을 그렇게 발음하시는 것이었다.

싸이의 본명은 박제상이다. 그가 방송에서 한 말에 따르면, 친구들은 그를 '제싸이' 혹은 '싸이' 라 불렀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경을 'ㅇ' 이다. 지금도 경주지방에는 이 발음이 남아있다. 박제상은 가수가 되면서 자신의 예명을 '싸이' 라 했다고 한다.

박제상은 자신의 예명 '싸이' 를 로마자로 Psy라 쓴다. 왜 그랬을까? 그냥 sy만 쓰면 '사이' 처럼 들릴까봐 앞에 p를 보충한 것이다. 어디서 본듯하지 않은가? psychology(심리학), psychiatrist(정신과 의사) 등의 영어단어에서 바로 psy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단어들에 p가 있다고 해서 발음이 '싸이콜로지' 로 나는 것은 아니

다. p가 없어도 sign은 '싸인' 이지 '사인' 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수 싸이는 발음 때문에 p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멋으로 그런 것이다. 그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렇다, 적어도 언어학적으로는.

Psyche를 영어로는 '싸이키' 라 발음하지만 그리스어로는 '프시케' 라 발음한다. 그리스어뿐 아니라 프랑스어에서도 p를 발음하여 '프시케' 라 한다. psychology는 프랑스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프시콜로지' 라 발음한다.

외국어 발음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출신의 차이코프스키는 영어로 Tchaikovsky라 표기한다. 앞의 't' 가 없이는 러시아어 본래의 경음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홍용철 교수가 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Hong Yong-Tcheol로 표기한다. 왜 이렇게 복잡한 철자를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프랑스어에서는 cheol만 쓰면 '셜' 로 발음되기 때문에 앞에 't' 를 보충했다고 한다. 그렇다. 프랑스어에서는 che-가 '스' 으로 발음된다. 중국의 모택 동은 로마자로 Mao Tse Tung이라 표기한

다. '마오쩌둥' 란 중국어 발음을 살리기 위해 ts-를 쓴 것이다.

고유명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말 안에서도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일본어 '쓰나미' 란 단어는 tsunami라 표기한다. 그러니까 이 발음도 우리말의 쌍시옷 소리가 아니라 입을 닫았다가 급하게 열면서 내는 일본어 파찰음(affricate)인 것이다.



불판 바베큐&라운지

초대박 한식 BBQ 부페 오픈

푸짐한 각종 생고기, 양념고기, 밀반찬류, 야채, 해물까지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들과 불판에서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Price: Adult \$37.00
Kids 1 \$8.95
Kids 2 \$16.95



9시 이후: Happy Time Discount 매주 수요일: Lady Night Discount
가라오케룸 1인당 \$32/hr 제공

영업 시간: Mon-Wed 4:00 - 11:00
Thur-Sun 12:00 - 11:00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IOPE LANEIGE Mamonde HANYUL^{한울} Sulwhasoo

아리따움에서 준비한
풍성한 연말세트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Holistic sets to balance you this holiday season



ESSENTIAL DUO SET
SET INCLUDES Essential Balancing Water Emulsion
Deluxe Samples; Cassia Oil Extracting Water Emuls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Toning Cream
\$121



GINSENG DUO SET
SET INCLUD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Water Emulsion
Deluxe Sampl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Water/ Creams/Cream
Creamy Mask
\$174



TIME TREASURE DUO SET
SET INCLUDES TimeTreasure Resolving Water Emulsion
Deluxe Samples; TimeTreasure Resolving Water Emulsion/
Senam Cream/Eye Cream
\$220



IOPE

Beauty Beyond Expectation through Plant Science



**ENLIVENING CONTOUR
SERUM HOLIDAY GIFT SET**
SET INCLUDES Enlivening Contour Serum
Deluxe Samples; Enlivening Contour Mask Serum/Cream
\$66



**SUPER VITAL
DUO HOLIDAY GIFT SET**
SET INCLUDES Super Vital Softener Emulsion
Deluxe Samples; Super Vital Softener Emulsion/Cream
\$125



MEN HOLIDAY GIFT SET
SET INCLUDES Men Intensive Deepening Anti-Aging Emulsion
Deluxe Samples; Perfect Clean All In One Cleanser/ Bio Intensive Essential
Anti-Aging Emulsion
\$70

LANEIGE

Advanced Water Science™ Skincare



BASIC DUO
SET INCLUDES Essential Power Skin Refiner Emulsion
Deluxe Samples; Water Bank Essence/Cream/Water Sleeping Mask
\$50



SLEEP AND GLOW
SET INCLUDES Water Sleeping Mask/Lip Sleeping Mask
Deluxe Samples; Water Bank Moisture Cream
\$30



KISS AND MAKEUP
SET INCLUDES Lip Sleeping Mask
Deluxe Samples; Lip Sleeping Mask Grape Fruit/Apple/Lime/Vanilla
\$28

Mamonde
Inspired by Flowers
LET'S GLOW AHEAD
SET INCLUDES Pore Purifying Bubble Mask/ Flower Lat Exosome Mask
Deluxe Samples; Calming Hydrate Sleeping Mask/ Pore Clear Day Mask
\$85



HANYUL
Mother's Wisdom
RICE ESSENTIAL
SET INCLUDES Rice Essential Water/ Emulsion
Deluxe Samples; Rice Essential Eye Cream/Cream
\$73



HOLIDAY PERKS JUST FOR YOU



1+1

BUY 1 GET 1 FREE

Happy Bath
Damask Rose Body Wash 500g
Magnolia Scented Body Wash 500g



Gift with \$80 Purchase
of any men products
Receive an ARITAUM stuff bag
(limited quantity)



Gift with \$150 Purchase
Receive an ARITAUM tote bag
(limited quantity)

BUY 10 GET 10
JUST FOR YOU



ARITAUM Sheet Mask

ARITAUM

ARITAUM BOS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nside H Mart) 781.229.680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7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무릎 꿇은 나무

문득 '소리와 공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소리라는 것이 귀에 울리는 울림이라면 어쩌면 공명은 마음에서 울리는 울림이리라. 번잡한 도시에서 바빠 움직이는 발걸음과 소음에서 마주한 소리와 이른 새벽 고요한 숲에서 듣는 소리를 상상해 보라. 그렇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소리마저도 고요한 자리에 서면 움츠러들고 무슨 말(소리)을 해야 할지 망설임마저도 든다. 그것은 현대인의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리라 생각이다.

"로키산맥 해발 3,000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나무의 모습은 수도자들에게 고행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정표로 보이며, 신을 찾는 사람에게 위대한 신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

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바이올린 현에서 우리나라의 만 가지 음색은 아마도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렸던 시간들의 공명일 것이다."

겨울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깊은 숲에 들면 나무들의 키가 작아지고 잎이 작아지고 있음을 말이다. 춥디추운 겨울의 흑한과 세찬 비바람의 한파를 견디며 묵묵히 제 생명을 지키는 나무들을 보면 참으로 감동하게 된다. 어디 산뿐일까. 화씨 110° F(섭씨 40° C)를 웃도는 무더운 열기 속 사막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방울 하나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있을 내고 꽃을 피우는 생명의 존귀함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제 생명을 지키며 키우는 자연을 보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창조주의 손길을 본다.

이 세상에는 얼굴의 색깔과 모양만큼이나 삶의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는 각각각색이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이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던가. 주변의 나 아닌 다른 사

람들을 둘러보면 걱정근심 하나 없어 보이고 그들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더욱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와 나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일 것이다.

이렇듯 다 똑같은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싶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들고 태어났으니 말았느니 하는 얘기가 있지 않던가. 물론 어느 출발점에서 시작했느냐가 물론 중요할 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놓인 지금의 환경이 어느 곳인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출발점이란 생각이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노력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그것보다 더 초라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경제적든 건강이든 간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간에 탓이란 끝이 없으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내게 지

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물질주의 현실에서 돈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돈으로 자식을 어찌 살 수 있으며, 돈으로 어찌 건강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곁에 건강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음이 행복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고 덮고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플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정신과 육체의 깨끗함(건강함)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그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이 삶에서 더욱 든든해지고 튼실해져 그 어떤 비바람과 한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삶의 약속인 까닭이다. 저 로키산맥 해발 3천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에서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한담객설閑談客說: 왜 불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물아래 그림자지니 다리위에 중이 간다. 저 좋아 게 있거라. 너 가는데 물어보자 막대로 흰구름 가르키며 돌아아니보고 가노매라.' (정철)

70년대 중반 무렵이다. 최인호 원작소설인데,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 있다. 한국에선 경찰이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을 할 적이다.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장발 청년들이 달아나는 장면을 떠올린다. 힘찬 송창식노래가 배경으로 흘렀다. 왜 불러. 돌아 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안들려 안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도망가며 부르기에 적당하다.

카톡에 친구들 연말 모임사진이 자주 올라온다. 할머니된 여학생들도 보이고, 머리 벗겨진

친구들도 있다. 평퍼짐하니 뺏살을 자랑하는 친구는 왜 없겠는가. 머리에 흰 성애를 얻은건 당연하다. 무상한 세월이여. 그 친구들도 가는 세월을 향해 목청껏 그리고 애타게 부르고 있을 것인가?

갈릴레오는 재판후 황망한 종종걸음으로 재판정을 나왔을 거다. 걸음이나 살려라. 뒤 돌아보고 싶지 않았을텐데, 내 상상만 엉뚱하다. 갈릴레오가 중얼거리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돈다는 말인가? 공전하면서 태양의 돌레를 돈다는 말이었던가? 그건 아리송하다.

또 다시 한해가 완전히 간다. 가는 해가 돌아보며 한마디 할지도 모른다. 잘 가고 있는데, 왜 불러. 부르지 말라.

송구영신送舊迎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마태 27:47)

곧 성탄절이다. 한창 전축에선 캐럴이 울릴 것이다. 성탄을 축하해야 마땅할텐데, 마음은 한편 착잡하다. 이젠 연말이 들뜨게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고, 아쉬움만 가득하다. 한해가 다 시간다는 생각이 앞서 그럴게다.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았다. 재판후 범정을 나오면서 했다는 말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덕분이라고 할 수있다. 예년과 다름없이 지구는 태양을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왔다. 그러므로 작년에 왔던 겨울이 한창이다.

정철 시조이다. 배경이 되는 때는 늦은 가을 일지도 모른다. 아니, 요즈음 같은 깊은 겨울이라 해도 괜찮다. 푸른 하늘에 몇점 흰구름 떠있다면 그림이 그럴듯 하다. 바람을 메고, 지팡이 짚은 스님이 표표히 걷고 있는 정경인게다. 그런 스님은 누가 부른다고 걸음을 멈출일도 없다. 스님은 다만 중얼거렸을수도 있겠다. 왜 불러. 하긴 송강이 불러 세우려는 건 세월인도 모르겠다.

CAPT LOUI SEAFOOD BOIL

루이루이가 새로운 이름 **캡틴 루이**로 고객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FREE LOBSTER! AND MORE



연말연시 특별 이벤트 (2018년 12월 31일까지)

콤보메뉴를 구입하시면:

PICK 2 : Free French Fries or Garlic Noodles

PICK 3 : Free Crawfish or Mussels

PICK 4 : Free Lobster or Snow Crab

* 자세한 내용은 저희 스텝에게 문의하세요!



ALLSTON : 617.208.8133
160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STONEHAM : 781.435.2145
101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벌거숭이 임금님 거울 보여주기

중년 중용(中庸)의 덕. 백과사전에는 이를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적 욕심이 없을 수 없으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덕적 본성이 없을 수 없는데,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을 사는 우리는 덕(德)만 추구할 수도 없고, 실(實)만 추구해서도 안된다. 가끔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다시 중용의 위치로 돌아오는 노력을 해야한다. 부정부패, 사기, 권력남용은 너무 실(이익)에만 치우친 결과이고, 이념주의, 금융주의, 테러리스트 혁명 등은 덕(사상)에만 치우친 결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볼 수가 없다. 자신이 실에 치우쳤는지, 덕에 치우쳤는지는 타인들의 눈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주변에 아첨꾼들만 있다면 결국 아무도 실상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지도자들이 종종 독재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진언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아동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 이 기억 될 것이다.

부동산은 개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정 결정이다. 근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최대의 실(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중용은 현실과 이익의 밸런스이다. 모든 셀러는 최고가로 주택을 팔고 싶고, 모든 바이어들은 최저가로 구입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차이가 현실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손님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첨하는 간신들이 넘치는 조정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충신은 귀양가는

사례가, 인정받는 사례보다 많기 때문이다. 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에이전트들이 입바른 소리보다는 아부의 소리를 들려준다. 손님이 없는 에이전트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손해가 날 것이 없다. 이미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언이설로 손님들을 혼란시킨다. 반면에 손님에게 이미 고용된 에이전트는 손님을 다른 에이전트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에 신뢰가 없다면, 손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말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손님들은 아첨하는 간신들에게 둘러 쌓이게 된다. 자신의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거울을 보여주려는 에이전트가 주변에 없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들이 손님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가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커미션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용의 덕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주택매매는 너무도 쉽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57 화랑세기花郎世紀, 10세 풍월주風月主 미생랑美生郎(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생은 출근할 때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관청으로 가서 놀다가 퇴권하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새로 맞이한 첩(만세의 처제)의 가무를 즐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만 미생의 아들인 백생(白生)과 통정하였다. 이에 미생은 아들 또래의 그녀를 아들과 해로 하라면서 백생에게 주었다.

251) 자방은 장량(張良) (? ~ 기원전186)의 자이다.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를 건국한 주역들이다. 즉 유방(劉邦)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漢)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유방으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우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 라는 극찬을 받은 중국사를 대표하는 대전략가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사(謀士)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량은 유방, 소하, 한신과 달리 한(韓)나라의 명문가 출신이다. 조부 장개지는 소후, 선해왕, 양에 왕 때 재상을 지냈으며, 아버지 장평도 희왕, 도혜왕이 왕좌에 있을 때 재상을 지냈다. 그러나 기원전 230년, 한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장량은 조국을 잃었다. 그래서 진나라에 복수하기 위하여 기원전 218년경, 진시황제의 행차가 박랑사(현재의 허난성 양창)를 지나갈때 창해역사를 시켜 시황제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름을 바꾼 후 허비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황석공으로부터 태공병법을 배웠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고 어린 호해가 2세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자 환관 조고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진나라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진승과 오광이 이끄는 농민의 난 등 전국 각지에서 진나라 타도 봉기가 일어났다. 이때 항량은 조카 항우를 데리고 회계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유방 역시 군사를 일으켜 하비의 서쪽에서 주둔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장량이 유방을 찾아가고 그의 얼굴에서 제왕의 기운을 느끼고 돕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장량의 뛰어난 계책으로 한 고조 유방을 완전한 대륙의 패자(覇者)로 만들었다.

진평(? ~ 기원전178)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때 부터 지략이 뛰어난 모사였다.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오광’이 봉기하자 그는 위왕 구를 섬겼지만 중용되지 못하였고, 다시 항우를 따라 진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시 유방을 섬기자 유방은 그를 매우 신임하여 중책을 맡겨 막하에 있게하였다. 뛰어난 그의 계책으로 유방을 위안에서 몇번이나 구했다. 기원전202년 유방은 숙적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의 위에 올랐다. 하지만 반역의 조짐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초왕 한신의 반역 사건이었다. 기원전201년, 한신을 정면으로 치려고 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유방은 진평과 계책을 세웠다. 그래서 진평의 계책으로 한신을 체포할 수 있었으며 한신의 입에서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게끔 하였다.

“과연 내려오는 말이 맞도다. 민첩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하던 개는 소용이 없어 삶

아 죽이고(狡兔死 走狗烹), 높이 나는 새가 없으면 좋은 활은 감추어진다(高鳥盡 良弓藏). 적국을 치고 나면 모신(謀臣)은 망하는구나. 천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처음부터 삶겨질 운명이었어!”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신은 모반의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

위에 등장하는 진승도 비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무능한 2세 황제 호해와 환관 조고가 혼란스럽게 정치를 할때 농민봉기를 주도하였다. 그는 소작농으로 전전하던 소시적부터 허풍을 잘떨어 그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연작(燕雀(제비와 참새)이 어찌 홍곡(鴻鵠(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燕雀安知鴻鵠之志哉)” 며 지금까지도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명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오광과 함께 봉기를 일으킬 때는 “세상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王侯將相 寧有種乎)” 라며 스스로 장초(長楚)라는 나라를 세워 왕위에 올랐다. 한편 1198년(고려 신종 원년) 무신 집권기에 최충현의 노비 만적이 노예해방(만적의 난)의 거사를 일으키면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많은 노비들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한중유의 노비 순정이 주인에게 밀고하여 실패로 돌아갔고, 백여명의 노비들이 자루에 넣어진채 강물에 수장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사기(사마천)

World-Okta

Boston-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스톤 경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민자인 유대인/중국인들에 비해
BOSTON KOREAN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Boston의 Young KOREAN들은
큰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Meeting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보스톤 옥타 한인경제인협회)는 chamber of commerce로서 미국의 타도시 뿐 아니라 world-wide Korean CEO network을 통해 세계 170여개 주요도시에 경제네트워크를 보스톤 기반 사업가/전문인들에게 연결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이 지역 회원 사업가들 및 미래 사업가들을 크게 성장시키는데 설립사명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22일 11am 연말 모임 및 회원 가입 문의: bostonoktacom@gmail.com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 c/o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oor, Cambridge, MA 02138)
617-492-2722 | bostonOKTacom@gmail.com



한해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사랑하고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가장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2018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2) - 소득이 별로 안되는데... 세금신고해야 하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안하면 벌칙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람(Who MUST file)과,

둘째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해야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Who SHOULD file)이다.

1. Who MUST file

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은 ①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과 ②최저한세를 내야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1)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먼저, 1년간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납세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일반납세자’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세금신고 유형(filing status)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If your filing status is...	AND at the end of 2018 you were...	THEN file a return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Single	under 65 65 or older	\$ 12,000 13,60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65 or older (one spouse) 65 or older (both spouses)	\$ 24,000 25,300 26,6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 5
Head of household	under 65 65 or older	\$ 18,000 19,600
Qualifying widow(er)	under 65 65 or older	\$ 24,000 25,300

예를들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사람을 보면,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이면 총소득(gross income)이 \$24,000,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이면 총소득이

\$25,300, 그리고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면 총소득이 \$26,600 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금액은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부부합산신고자의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어느 납세자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이라면, 납세자는 최소한 표준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굳이 세금신고를 강제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RS ‘1040 Instruction’의 ‘Chart A- For Most People’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나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IRS ‘1040 Instruction’의 ‘Chart B-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서 65세이상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아닌 사람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 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등)이 \$1,050을 초과하는 경우,
- ②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12,000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 \$1,050
- b) Earned income(\$11,650한도) + \$350

따라서 이자소득이 \$1,050초과한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소득이 \$12,000을 초과한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2)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

다음으로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부담하는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 교회 등으로 부터 \$108,28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IRS는 7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IRS ‘1040 Instruction’의 ‘Chart C - Other Situations When You Must File’을 참조하기 바란다.

2. Who SHOULD file

소득이 위 1. Who MUST file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급여는 기준금액에 미달
-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있음
-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음

이 경우는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IRS가 정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도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신고를 안했다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다. 즉,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지만, 신고를 안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아래와 같은 환급받을 세액공제액이 있어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한다.

- Earned income credit.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Credit for federal tax on fuels.
- Premium tax credit.
- Health coverage tax credit.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FRANCHISE
OPPORTUNITIES
AVAILABLE



GROW YOUR PASSION. SHAPE THEIR FUTURE.

Discover why making kids smarter
is smart business and achieve
inevitable success in 2019!



Join Eye Level's Franchise Seminar
Sunday, January 13th

Cambridge Music Consortium
315 Broadway, Cambridge, MA 02139

Please RSVP to mike.kim@myeyelevel.com or 201.820.7827

LEARN MORE TODAY
usafranchise.myeyelevel.com

Monday, January 14th

Boston Indigo Hotel
399 Grove St., Newton, MA 02462

Most Eye Level Centers ar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55)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해가 가기 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주시하면 투자자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투자한 것이 후회되고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한 투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며 투자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잠시 접고 그래야 하는 이유 (Time in the stock market beats timing it, Ken Fisher, USA Today, Sep. 17, 2018)를 함께 알아봅시다.

모든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최저점에 있을 때 투자하고 최고점에 도달하면 팔고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투자자 생각에는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투자자 3명이 있습니다. 영희, 철수, 그리고 John입니다. 세 명의 투자자는 197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매년 \$10,000씩 투자했습니다. 투자 종목은 S&P 500, 즉 미국 500개 회사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영희는 머리가 뛰어나서 해마다 주식시장이 최저점일 때 투자했습니다. 41년 동안 투자의 연수익률은 11.4%라는 놀라운 수익률로 투자금이 820만 불로 불어났습니다.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철수는 매년 주식시장이 최고점일 때마다 투자했습니다. 운도 역세게 없는 철수의 연수익률 10.8%로 670만 불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 John은 투자 시점을 가늠하지 않고 매년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연수익 11.1%로 780만 불로 증가하였습니다.

머리도 비상하고 운도 따른 영희와 John의 투자 결과 차이는 연수익률에서 단 0.3%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철수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철수는 1977년부터 매년 주식시장 최고점에서 \$10,000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여자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머리 좋은 영희는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모든 수련 과정을 지낸 후 철수보다 10년 후인 1987년부터 그리고 매년 주식시장이 최저점일 때마다 \$10,000씩 투자했습니다.

2018년 중순에 철수와 영희의 투자 결과를 보았습니다. 10년 일찍 시작했지만, 그 후 여친(?) 때문에 투자를 중단했을 때 불어난 투자금 \$216,576이 2018년에

500만 불로 불어났습니다. 어려운 공부 하느라 10년 늦게 시작해서 2018년까지 꾸준히 투자했고 그것도 매년 최저점에 투자했던 영희는 2018년 210만 불입니다. 결론은 투자를 일찍 시작한 철수와 투자를 늦게 시작한 영희의 자산은 철수 자산의 5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 돈이 꾸준히 주식시장에 있어야 하며 (It's not the timing the market, it's time in the market.) 투자는 적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해집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제대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모든 방송 매체를 잠시 멀리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보내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투자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체류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5)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US Constitution 관세국경보호대와 미국 헌법

작년 뉴햄프셔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I-93)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이민법 관련한 위반사항은 기록이 없으며, 마약 소지 위반건만 있었고, 이를 지역 검찰이 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시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이 지면을 빌어 보냅니다.

제가 구독하여 보고있는 유튜브 중 제임스 프리먼 (James Freeman)이라는 개인 방송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정헌법 1조 (자유)와 4조(검문검색)를 몸소 점검합니다. 백인입니다만, 가끔 함께하는 사람중에는 아시안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방송가는 헌법권리를 위반하는 공권력에 대하여는 태도가 그리 정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려는 공권력은 더더욱 정중하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똥똥”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거 다 제하고, 한가지만 본다면,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더이상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송인이 국경 체크포인트를 지날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나 체포된거야?” 아니면 “나 잠시 검문중이야?” 라는 말만 합니다. 에이전트가 뭐라도 물으면 “난 대답 안해” 라고 답하죠.

이는, 체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체포영장심사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물으면 대부분 에이전트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실정법 위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럼 나 가도돼?” 라고 물으면 “...” 답을 하지 않거나 “너 미국 시민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난 대답하지 않아” 라고 답하구요.

대답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5조에 해당하는 묵비권입니다. 비협조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권력들이 위협적으로 너는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니 의심스럽다고 99% 얘기하고 체포위협하거나 실제로 체포합니다.

제임스 프리먼은 종종 체크포인트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무런 이유없이 정차되어 있다가 가게 됩니다. 국경보호대 역시 이를 그냥 보내주는 것은 모양입니다. 헌법에는 간결 (brief detention of travelers)하게 검문검색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경보호대의 간결함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간결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검문검색의 주목적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것인가이구요 (right to be in the US). 통상적인 범죄 예방 및 검거의 목적으로는 검문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 US v. Martinez-Fuerte, 428 U.S. 543, 558 (1976).

이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는 반드시 간결하게 이뤄져야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에 국한되어야 한다. Id.
- 지역 주민은 이런 질문없이 그냥 통과된다. Id. at 550.
- 차량이나 탑승자에 대한 탐색은 할 수 없다. Id. at 558
- 2차 조사는 반드시 거주 상태에 대한 조사에 국한해야하며, 교통량이 많아 모든 운전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없을때 이

뤄진다. Id. at 560.

이외 다른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검문을 이민법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탐색견으로 마약탐지하는 등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단, 그런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 내부를 동의 없이 혹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탐색할 수 없다.
- 탐색견은 반드시 정확도 검증과 탐색견 훈련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탐색견의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 인종에 의한 선별적 체크포인트 검문검색이나 차량 탐색 구분은 불법이다.
- 운전자가 체크포인트에서의 모든 행위를 영상녹화하는것은 합법이고, 이를 수행하는 단속원에 대해 배지넘버 등 신분을 밝히는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전자는 항상 수정헌법 5조에 의해 아무말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단속반의 합법적 체류여부 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문검색이 길어질 수 있다.
- 체크포인트를 도주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18 U.S.C. s.758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상속·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BOSTON Eds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22(토)~12/29(토):7일
(크리스마스 당일 휴강)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 II Subject Test

Math II,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9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 기간: 2019년 2월 까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Ste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